

조르쥬 무냉(G. Mounin)의 번역론에 관한 소고 — 『레 벨 앵피델』을 중심으로*

신 정 아
(한국외대)

1. 여는 말

20세기 후반 활동한 프랑스의 대표적 언어학자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조르쥬 무냉(Georges Mounin)은 또한 많은 이들로부터 프랑스 번역학의 창시자로 일컬어지고 있다. 그는 1963년 발표한 『번역의 이론적 문제점』(*Les problèmes théoriques de la traduction*)¹⁾에서 1950/60년대에 비약적으로 발전한 언어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번역을 과학적 성찰에 근거한 종합적 학문으로 다루고자 하였다. 그 덕분에 그전까지 프랑스에서 발전해온 번역가의 경험적 지식에 근

* 이 논문은 2008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

1) 무냉의 『번역의 이론적 문제점』 프랑스어판은 1963년 갈리마르(Gallimard) 출판사에서 출간되었고, 국내에는 2002년 이승권의 번역으로 출판되었다. 이 글에서 인용된 내용은 우리말 번역본 페이지를 참조하였다.

거한 연구로서의 번역담론들과 차별화된 이른바 과학적 번역학이 탄생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무녕의 업적은 선구자적으로 평가된다.

사실 번역에 대한 무녕의 관심은 『번역의 이론적 문제점』이라는 그의 기념비적 저작이 발표되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86년 서정철(186)과의 대담에서 밝힌 것처럼 무녕은 8년 간의 이집트 체류 중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랑스어 교사 경험과 프랑스 귀국 후 계속된 중학교 영어, 이탈리아어 교사 경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번역에 대한 관심을 키워왔다. 1955년 발표된 『레 벨 앵피델』(*Les belles infidèles*)이라는 소책자에서 후일 그 자신뿐 아니라 여러 번역학자들이 지속적으로 다루게 될 번역학의 주요 쟁점들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과연 번역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것인가? 반대로 번역이 가능하다면 어떠한 근거에서 그러한가? 역사적으로 어떠한 번역 방식이 존재해왔는가? 이러한 일련의 문제들에 대해 무녕은 단순하고 명확한 스타일로 기존의 번역 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바탕으로 논지를 전개시키면서 언어학적 개념을 통한 이론적 논거를 통해 번역의 필요성, 더 나아가 번역의 가능성을 옹호하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무녕의 책 제목인 ‘레 벨 앵피델’은 아름다우나 부정한 여인들을 뜻하는 프랑스어 표현으로 17세기 프랑스 고전주의 시대를 지배했던 번역관을 지칭하는 말이다. 메나쥬(Ménage)가 다블랑쿠르(Perrot d’Ablancourt)의 번역을 평하면서 “그 번역들을 읽으면 내가 투르에서 몹시 사랑했던, 아름다우나 부정했던 한 여자가 생각한다”(Larose 재인용 4)라고 비유한 데서 유래한 이 표현은 한 마디로 17세기와 18세기 프랑스에서 유행했던 매끄럽고 우아하지만 원문에 충실치 못한 번역을 총칭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책의 제목이 함의하고 있는 바를 훨씬 넘어선다고 말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책의 출간 당시 무녕은 책 제목으로 ‘번역 기술의 옹호와 선양’을 염두에 두고 있었지만 당대 『카이에 뒤 슈드』(*Cahiers du Sud*)를 맡고 있었던 편집자 발라르(Jean Ballard)에 의해 현재의 제목으로 대체된 사실은 공히 알려져 있다.²⁾ 편집자가 ‘레 벨 앵피델’이라는 제목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2) 조르쥬 무녕의 『레 벨 앵피델』 재판의 서문을 쓴 발라르(Michel Ballard)와 뫼스트(Lieven D’hulst)는 책제목이 결정된 과정에 관한 이 같은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1955년 초판이 나온 『레 벨 앵피델』은 절판된 후 오랫동안 찾아보기 힘든 상태로 남

이런 제목이 번역에 관심이 있든 없든 프랑스어권 독자들에게 훨씬 매혹적으로 들릴 것이며, 심지어 상상력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실용적 판단 때문이었을 것이다. 어찌 됐든 이 책의 제목은 결과적으로 독자와의 소통을 위해 단순하고 간명한 문체를 선호했던 무냉의 글쓰기 방식은 물론 무냉이 주로 문학 텍스트를 통해 논거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꽤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레 벨 앵피델』에서 무냉이 다루고 있는 번역의 주요 논점을 책의 구성 순서에 따라 번역 불가능성의 전제와 번역 가능성의 옹호, 그리고 번역의 양식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러한 논의를 통해 드러나는 무냉의 번역관이 가지는 의의와 한계를 짚어보게 될 것이다.

2. 번역은 가능한 것인가?

2.1 불가능성의 전제

무냉의 관심은 한 마디로 번역의 가능성 혹은 불가능성 문제로 집중된다. 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 전에 무냉은 오래 전부터 많은 이들이 번역의 불가능성을 논해왔고, 실제로 번역작업을 하는 이들까지도 ‘번역은 곧 반역이다’라는 명제를 인정하고 있는 만큼 먼저 번역 불가능론의 기저에 자리 잡고 있는 이유를 밝히는데 주력한다.

그가 보기에 번역의 불가능성을 논하는 이들의 논거는 대개 세 가지로 압축된다. 즉, 논쟁적, 역사적, 이론적 근거가 그것이다. 논쟁적 근거라 함은 시대를 막론하고 질이 떨어지는 번역을 생산하는 번역가에 대한 비판과 관련된 것으로 번역자의 자질을 문제삼는 것을 말한다. 역사적 근거는 어느 한 특정 시대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된 관점에서 출발하여 번역의 불가능성을 논하는 것이다. 이런 역사적 근거는 때로 앞서 언급한 논쟁적 근거와 연결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한 예로 16세기 프랑스의 경우 인쇄술의 발명과 빠른 사상의 전파 덕분에

아 있다가 1994년 릴 대학 출판부를 통해 다시 세상에 선을 보였다. 우리가 참조한 판본 역시 1994년 출간된 판본임을 밝혀둔다.

새로운 독자층이 형성되면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의 작품에 대한 번역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 과정에서 숙련되지 못한 번역가들이 번역에 뛰어들면서 질이 형편없는 번역물들이 판을 치게 되었다. 무녕에 따르면, 번역에 대한 뒤 벨레(Joachim Du Bellay)의 혹독한 비판은 무엇보다 자기 시대 번역가들의 형편없는 자질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뒤 벨레의 말을 들어보자.

그런데 그들이 번역가(traducteur)라기보다는 오히려 반역자(traditeur)라고 불러 마땅하다는 것 말고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보여주고자 하는 이들을 배반하고, 그들의 영광을 약탈하며 똑같은 방식으로 혹을 백이라 말하며 무지한 독자들을 현혹시킬 뿐 아니라, 지식인이라는 이름을 얻기 위해 언어의 기초적 요소도 제대로 모르는 채 히브리어나 그리스어 같은 언어들에 제멋대로 번역하고 있으니 말이다(1955 재인용 14).

하지만 이어지는 뒤 벨레의 논증을 따라가다 보면 길으로는 순수하게 논쟁적인 듯 보이는 비판의 기저에 그가 살고 있는 시대의 역사적 요구와 시대적 당위성에 따르고자 하는 지식인의 고뇌가 담겨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1549년 뒤 벨레가 『프랑스어의 옹호와 선양』(*Défense et illustration de la langue fran aise*)을 집필할 당시 프랑스어는 고유한 창작 언어로 인정받지 못하고, 고대 그리스 로마의 지식을 전달하는 번역어로서의 기능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었다. 이런 사실을 고려한다면 프랑스어의 권위와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매진했던 뒤 벨레가 번역에 대해 일정한 거리를 둔 이유가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18세기 계몽주의 철학자 몽테스키외(Montesquieu)가 번역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견지한 것(1964: 130)³⁾ 또한 당대의 역사적 상황 속에서 본인이 취하고자 했던 입장과 관련되어 있다. 17세기 후반부터 프랑스 문학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이른바 ‘신구논쟁’(Querelle des Anciens et des

3) 몽테스키외는 『페르시아인의 편지』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알려드릴 소식이 있다며 파리사람이 소리쳤다. ‘『호라티우스』를 세상에 내놨어요.’-기학학자가 말했다. ‘뭐라구요? 그 책이 나온 지는 2000년이 됐는데요.’-그러자 앞서의 사람이 다시 말을 받았다. ‘이해를 못 하시는군요. 내가 세상에 내놓은 것 그 옛날 호라티우스가 쓴 책의 번역본이란 말입니다. 내가 번역에 종사한 지 이십 년이 됐어요.’-기학학자가 말했다. ‘뭐라구요? 당신은 그럼 이십 년 동안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Modernes)⁴⁾의 연장선상에서 근대인의 가치를 옹호하고자 했던 몽테스키외는 고대인들이 이미 모든 것을 말했으므로 그들을 번역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대파들의 입장에 맞서 번역행위를 통해 이미 말해진 것을 반복하느니 새로운 생각과 시각을 글로 보여주는 것이 낫다는 사실을 설파하고자 했다. 번역에 대한 부정적 의견은 이런 과정의 필연적 산물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모두 무넝이 보기에 진정한 의미에서 번역 불가능성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순전히 논쟁적인 이유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역사적인 고려 역시 어느 한 시대의 특수한 상황에 한정된다는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컨대 프랑스어의 위상이 이전 세기와 많이 달라진 17세기만 해도 앞서 언급한 뒤 벨레의 논거는 시대착오적인 것이 될 수 있으며, 몽테스키외의 번역 비판은 다양한 분야에서 매일같이 새롭게 생산되는 정보와 지식들을 빠른 기간 내에 흡수, 체화하는 것이 국가 혹은 개인의 경쟁력 강화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버린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전혀 유효하지 않은 주장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이제 과연 이론적으로 어느 특정 번역가, 특정 시대에서의 번역이 아니라 번역행위 자체의 불가능성 혹은 한계를 증명할 수 있는가라는 점으로 요약될 수 있다. 무넝에 따르면 번역 불가능성을 주장하는 이론적 근거는 의미론, 형태론, 음성론, 문체론이라는 네 가지 범주로 나뉜다. 즉, 의미론적 차원에서 몇몇 단어나 표현은 원본텍스트와 다른 언어로 옮겨질 수 없으며, 언어 간 번역의 경우 형태론적 차원에서도 원본 텍스트의 어순이나 리듬이 번역과정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음성학적 측면에서 제기될 수

4) 신구논쟁은 17세기 프랑스 문학장을 뜨겁게 달구었던 사건 중의 하나로 1687년 샤를 페로(Charles Perrault)가 아카데미 프랑세즈에서 『루이 14세의 세기』라는 시를 낭송하면서 본격적으로 불붙게 되었다. 근대파의 주장인 페로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를 맹목적으로 숭상하는 당대 고대파의 입장에 맞서 17세기 프랑시아말로 위대한 군주 루이 14세의 비호 하에 그 어느 때보다 큰 영광을 누릴만한 가치가 있으며, 그렇기에 17세기의 문화 예술 역시도 고대파의 그것과 동등하거나 오히려 더 우월하다는 주장을 피력한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보왈로(Boileau)로 대표되는 고대파들은 고대의 문화 예술은 이미 이상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점에 도달했기 때문에 후세의 임무는 고대의 문학예술을 완벽하게 모방하는 데 있음을 강조하고 나선다. 당대 문학장에 소속되어 있는 문인들이라면 이러한 논쟁 속에서 어느 한쪽에 속할 수밖에 없었으며, 논쟁은 18세기 초반까지 여러 저작물들을 통해 지속되었다.

있는 문제는 한 언어에서 어떤 단어를 구성하는 소리들이 내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할 때, 이것이 도착언어에서 같은 음소로 구성된 단어로 옮겨지기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마지막으로 문체론과 관련하여 보자면, 출발언어에서 사용하는 은유나, 알레고리, 비교 혹은 다른 수사학적 기법들이 도착언어에서 같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프랑스 번역담론의 역사에서 이 같은 차원에서 번역에 대한 문제점을 최초로 지적한 이는 다름 아닌 뒤 벨레이다. 그는 손주경(2007)의 지적처럼 16세기 르네상스 시대 인문주의자들의 번역을 비판하면서 앞서 언급한 논쟁적, 역사적 이유 외에 과연 한 작가의 스타일, 문체, 에스프리가 번역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번역의 불가능성에 대한 본질적인 성찰을 이끌어냈다. 어찌 보면 그 이후에 등장한 번역 불가능성에 관한 담론들은 뒤 벨레의 주변을 돌면서 그의 주장을 끝없이 반복 재생산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무녕이 번역 불가능성의 전제들을 다룬 부분의 마지막을 “고로 번역의 문제점들을 연구하고자 한다면, 심지어 번역의 옹호와 선양에 대한 글을 쓰고자 한다면, 의논 상대로 삼아야 할 사람은 바로 뒤 벨레이며, 논박해야 할 대상도 항상 그이다”(1955 26)라는 말로 결론짓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2.2 번역 가능성을 위한 변론

무녕의 번역론은 번역 가능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번역이 쉽지 않은 작업임에 틀림없지만 그렇다고 실현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단적으로 말해 인류 역사 속에서 지속적으로 번역이 이루어져 왔다는 실천적 사실이 이를 증명하지 않는가. 게다가 현대 사회에서 번역의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무녕은 번역 불가능성을 어떤 근거를 들어 반박하고 있을까? 번역 가능성을 위한 그의 변론은 어떤 논리에 기반하고 있을까? 또한 그 의의와 한계는 무엇인가?

무녕은 앞서 번역 불가능성의 첫 번째 근거로 의미의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그러나 의미의 문제는 번역에서 결코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무녕의 생각이다. 흔히 번역가들은 외국어 단어의 “표현성”(expressivité)을 완전하게 옮길 수 없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끼며, 이 같은 두려움은 번역행위

속에서 종종 두 가지 양상으로 표출된다고 한다. 즉, 소위 원문의 단어나 표현이 번역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각주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우 혹은 외국어 단어나 표현의 표현성을 지나치게 높이 평가한 나머지 번역본에 원본 텍스트에 없는 의미를 첨가하거나 현재의 의미와 상관없는 어원을 찾아 번역에 반영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무냉은 외국어의 표현성과 관련된 번역의 문제는 상황에 따라 다른 번역방식을 택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외국어 단어가 환기시키는 이미지가 도착언어로도 정확히 같은 이미지를 제공할 경우에는 단어 대 단어 번역을 선택하고, 반대로 외국어가 환기시키는 이미지가 도착언어와는 다르지만 다행히 도착언어에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표현이 있을 경우에는 도착어의 표현을 택하면 되는 것이다. 만일 도착어의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 예를 들어 한 국가나 부족의 전통의상 혹은 의례 등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언젠가 텍스트에 번역되지 않은 원어를 그대로 도입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다.

두 번째로 형태론에 기초한 번역 불가능성에 대한 무냉의 반론은 두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한다. 우선 통사론적 관점에서 현대 언어학은 고정 어순을 가진 것과 가변 어순을 가진 것이라는 언어 분류의 기준을 모호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다. 즉 프랑스어처럼 고정 어순을 지녔다고 간주되어 온 언어도 문장 안에서 여러 가지 방식의 어순 변화가 가능하며, 반대로 가변 어순을 지닌 언어라 할지라도 반드시 고정된 순서를 지켜야 할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또 다른 반론의 근거는 어떤 언어가 다른 언어에 있는 문법적 형태 혹은 범주를 갖지 못했다 해서 두 언어 간 번역이 불가능하다고 선불리 결론내릴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예컨대 프랑스어에는 지속상(*duratif*)이나 기원법(*optatif*)이 존재하지 않지만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의미의 ‘*etre en train de*’의 표현과 접속법을 이용하면 이들을 번역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음성학적 차원에서 제기된 문제 역시 극복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현대 언어학의 발전은 단어를 구성하는 소리가 그 단어의 의미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비록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 해도 이것은 경험에 근거한 귀납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달리 말하자면 음성학의 신비로운 힘이라는 것은 환상일 뿐이며, 소리가 의미에 대해 지니는 영향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했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 저자에 고유한 문체 혹은 스타일의 문제가 등장하는데, 무냉

은 이를 반박하기 위해 문학사에서 여러 가지 예를 끌어오고 있다. 무녕이 보기에 만일 문체를 구성하는 것이 번역 불가능한 것이라면, 흔히들 얘기되는 핀다로스 풍(pindarisme)이니 페트라르카 풍(pétrarquisme)이니 하는 것들은 애초부터 말해질 수 없는 것이고, 문학사에 존재했던 수많은 문학적 표절 사건이나 작품을 둘러싼 감정(鑑定) 논란 역시 아예 발생할 소지가 없어야 했다. 그러나 문학사에는 가장 용의주도한 비평가마저도 속을 정도로 완벽한 모방을 행한 실례가 존재하며, 이는 곧 문체 혹은 스타일이라는 것이 옮겨지고, 번역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번역 불가능성에 대한 무녕의 반론은 이후 1965년 발표된 『번역의 이론적 문제점』에서 보다 상세한 내용으로 발전하게 된다. 어떤 의미에서 『번역의 이론적 문제점』은 그 제목이 보여주듯 이전의 저작에서 간략하게 지적했던 이론적 문제점들을 따로 떼어내 보다 깊이 있게 성찰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녕이 제시한 번역 가능성의 근거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비판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우선 무녕의 번역론은 지나치게 언어적 차원에 치우쳐 있다. 무녕이 의미론 혹은 형태론과 관련하여 지적한 문제와 해결책들은 어휘 혹은 표현의 층위에 머물러 있을 뿐 텍스트 층위로 확장되지 않는다. 그 결과 번역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어휘 혹은 표현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가의 문제에 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이다. 그런데 과연 의미라는 것이 어휘와 구문의 층위에 존재하는 것일까? 언어 간 번역의 경우 어휘와 표현만 등가를 이루면 원본과 번역본이 동등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일까? 번역이란 것이 단순히 언어의 문제로만 환원될 수 없다는 점은 번역의 대상을 텍스트로 규정한 해석이론가들⁵⁾은 물론이요 20세기 후반 많은 번역학자들의 연구 속에서 이미 수없이 지적되어온 사실이다.

5) 예를 들어 해석이론의 창시자 중 한 사람인 르데레르(Marianne Lederer)(2001)는 『번역의 오늘』(*La traduction aujourd'hui*) 서두에서 번역이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던지고, 번역을 서로 다른 언어로 표현된 두 텍스트 사이에 등가를 재현하는 행위로서 필연적으로 두 텍스트의 성격과 목표, 두 언어 사용집단의 문화적 관계와 이들의 정신적, 지적, 정감적 풍토와 함수관계에 있으며, 원어와 역어의 시기와 장소에 고유한 요소들까지도 고려해야 하는 총체적 의사소통행위로 정의한 바 있다.

또한 『레 벨 앵피델』에서 의미론과 형태론 차원에서 번역의 가능성을 주장하기 위해 무냉이 제시한 여러 예들은 프랑스어와 영어, 이탈리아어 예문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후 출간된 『번역의 이론적 문제점』에서 그가 다루는 언어는 독일어와 러시아어로 확장되지만 전체적으로 동일한 문화권에 속하는 언어들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런 사실 앞에서 과연 무냉의 주장이 유럽문화권과 세계관은 물론 문자를 비롯한 언어 체계가 확연히 다른 동양의 언어나 기타 소수 언어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러한 비판을 의식한 무냉은 『번역의 이론적 문제점들』에서 ‘보편소’라는 개념을 동원하여 아무리 서로 다른 문명과 세계관이라 해도 둘 사이에는 공통된 보편소의 영역이 존재하며 “언어 간의 모든 번역은 적어도 보편소의 영역에서는 가능하다”(1965 207)는 주장으로 답을 대신하고 있다. 그러나 사는 곳과 사용 언어가 달라도 인간이라면 경험할 수밖에 없는 보편적 영역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사실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해도 그것이 완전히 다른 언어 체계 사이의 번역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을 제거해주는 열쇠가 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주장이다. 번역가가 번역작업에서 부딪치는 문제는 두 세계관 혹은 두 텍스트에 내재하는 보편소를 찾지 못해서가 아니라 텍스트 층위에서 외적으로 드러나는 언어적 인식적 문맥은 물론 메시지의 전달과 수용이라는 문제를 포괄하는 총체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무냉의 번역 옹호론을 문학번역에 적용해보자. 무냉의 책은 앞서 언급했듯이 17-18세기 고대 그리스 로마 작품들의 프랑스어 번역의 소산물들을 뜻하는 ‘레 벨 앵피델’을 제목으로 삼았다. 또한 책의 논지를 뒷받침하는 예들 또한 대부분 문학작품에서 발췌하였다. 그럼에도 무냉은 이 책에서 문학번역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더 나아가 문학번역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는 듯 보인다. 주지하다시피 문학적 글쓰기는 문학 내적 논리에 따라 형성된 장르의 제약을 따르게 되어 있는 바, 시적 운율을 비롯한 형식의 문제를 소홀히 다룰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무냉의 번역론에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전무하다시피 하다. 예컨대 운문으로 되어 있는 텍스트는 어떻게 번역해야 하는가? 시 텍스트 혹은 특별한 형식을 띤 문학텍스트 앞에서 번역자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형식을 내용에 우선할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형식보다 내용에 충실할 것인가? 이 때 선택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무녕이 제시한 주장 가운데 문학번역과 연관되는 부분은 아마도 문체와 관련된 부분이 될 것이다. 그런데 무녕은 여기서 문체를 구성하는 여러 수사법과 관련한 번역의 문제에 더 깊이 천착하는 대신 이쉽게도 “분명 오늘날 번역하기 어려운 것은 알레고리, 은유, 비교, 직유와 같은 고전적 수사법들이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간단하지만 미묘하고, 암시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그리고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옮겨질 때 쉽사리 찾아지지 않는 상관성과 의미들로 가득 찬 진짜 이미지들이다”(1955 50)라고 지적하는 데 그치고 있다. 현대 스타일 혹은 문체의 문제는 문학적 글쓰기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른바 문학성에 대한 해묵은 논쟁을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적어도 한 작가의 작품이 다른 작가와 차별되는 문학적 가치 혹은 예술적 가치를 획득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인류의 보편적 정서를 다루면서도 자기만의 글쓰기 스타일로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한다면, 번역 가능성을 옹호하기 위해 문체 혹은 스타일이 번역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문학텍스트의 본질과 문학성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는 보다 완전한 분석이 필요한 까닭이다.

3.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

3.1 투명유리와 채색유리

무녕의 논거에 따라 번역을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게 되면, 다음 단계는 번역을 실제로 어떤 식으로 행해야 하는가의 문제로 귀결되기 마련이다. 무녕이 보기에 서양의 번역방법론의 역사는 직역과 의역이라는 두 가지 번역 가능태에 대한 실험의 역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령 번역사를 논할 때 늘 등장하는 키케로, 호라티우스, 생 제롬 등은 원문의 자구에 매달리는 번역을 경계하였고, 이러한 번역태도는 16세기 인문주의 번역가들을 거쳐 17세기와 18세가 되면 앞서 살펴보았듯 의역의 극단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는 아름다우나 부정확한 여인들을 양산하기에 이르렀다. 즉, 이들은 당대 프랑스 사회의 시대적 취향을 표현하는 세련됨, 예절, 진실임직함 등의 원칙에 따라 원전에 대해 과감한

삭제와 교정, 표현의 완화를 감행하는 체계적인 교정을 하였고, 그 결과 원본 텍스트가 탄생한 시대와 장소의 흔적을 완벽히 지워버리고자 하였던 것이다(김윤진). 한편 19세기 초반부터는 프랑스 번역계를 지배해온 이러한 방식에 대하여 이른바 직역론으로 간주되는 상반된 번역의 흐름이 점차 큰 호응을 얻게 되었다. 샤토브리앙(Clément de Rémusat)은 아름다우나 부정한 여인들로 대표되는 이전 세기의 번역방식을 직접적으로 겨냥하였고⁶⁾, 르콩트 드 릴(Leconte de Lisle)은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번역본을 출간하면서 언어는 물론 시대색의 측면에서 원본의 특색을 그대로 살리는 방법을 택함으로써 후세의 번역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무냉은 역사적 고찰을 통해 살펴본 이 같은 두 가지 번역방식을 설명하면서 의역 혹은 직역이라는 용어 대신 ‘투명 유리’(verres transparents)와 ‘채색 유리’(verres colorés)라는 비유적 표현을 제안한다. 무냉에 따르면 이 표현은 러시아의 문호 고골(Gogol)이 번역가의 임무를 “우리가 없다고 착각할 정도로 너무나 투명한 유리가 되기”라고 말한 데서 빌어온 것이다(1955 75). 여기서 유리란 한 마디로 원문과 독자 사이에 존재하는 번역가와 번역행위 전체를 의미한다. 무냉이 제시한 두 가지 개념을 각각 정혜용(2005 272-73)의 번역을 재인용해서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투명유리)

“말 그대로, 언어적으로 낫설지 않도록 순수한 우리말로 바꾸어서, 직접 프랑스로 사고한 후 프랑스로 작성되었다는 인상을 풍기도록 번역하기—이른바, 우리가 아름다우나 부정한 그녀들이라고 부른 번역들이 내 걸었던 야심을 원문의 충실성도 유지하며 실현하기[...]

(채색유리)

혹은 독자가 번역문을 한 줄 한 줄 따라가는 내내 외국어의 (의미론적, 형태론적, 문체론적) 형식 내에서 텍스트를 읽고 있다는 낯선 느낌을 갖도록 한 자 한 자 충실하게 번역하기—우선 이런저런 외국어로 사고한 후 그 외국어로 작성한 텍스트를 프랑스로 읽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독자가 단 한순간도 잊지 못하도록 번역하기 [...]

6) “우리는 아름답지도 않으면서 부정한 여인들을 너무 많이 보았다. 이제 곧 아름다움이 결여됐다 하더라도 충실함이야말로 가치가 있음을 알아차리게 될 것이다.”

위의 인용문은 무녕에게 ‘투명 유리’라는 개념이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원문이 들여다보일 정도로 투명한 직역이 아니라 17세기의 아름다우나 부정한 여인들이 그랬듯 ‘우리가 너무 투명하여 우리가 있다는 사실조차 망각할 정도의 의역’을, 반대로 ‘채색 유리’는 ‘우리가 있다는 것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직역’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그런데 무녕이 제시한 이 두 개념을 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통적인 방식의 직역과 의역 구분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된다. 즉, 무녕의 투명 유리와 채색 유리를 구분하는 기준은 전통적인 직역과 의역의 구분 방식인 ‘단어 대 단어 번역’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혜용의 지적처럼 “번역을 읽으면서 독자가 갖는 느낌, 친숙한 혹은 낯선 그 느낌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273). 무녕은 투명 유리와 채색 유리의 구분 기준을 상술하면서 첫째, 출발어의 언어적 특성, 둘째, 원작이 탄생한 시대적 색채, 셋째 원작이 표현하는 문명적 색채라는 세 가지 기준을 들고 있는데 어떤 번역이 투명 유리에 가까운지 채색 유리에 가까운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로 전술한 세 가지 기준에 대한 번역 텍스트의 충실성의 정도라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직역, 즉 ‘채색 유리’가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원작을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번역이라면, 의역, 그러니까 ‘투명 유리’는 번역텍스트를 읽게 되는 독자에 대한 배려가 개입된 것으로 원본 텍스트의 시대와 번역가의 시대 사이에 존재하는 언어적, 시대적, 문화적 차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번역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각색이야말로 완전한 투명 유리의 완성이 된다고 할 수 있다. 투명 유리는 고로 무녕의 번역 논의가 번역 담론의 한 축인 충실성에 머물지 않고 독자의 또 다른 이름인 가독성의 축마저도 아우른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훌륭한 예가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무녕은 출발어의 언어적 특성과 대등하게 도착어 혹은 독자의 언어는 물론 역사적, 문화적 요소를 중시함으로써 단순히 원문의 자구어의 충실성 여부로 직역과 의역을 가르는 전통적 구분을 깨고 새로운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3.2 통일성의 원칙

이제 앞서 언급한 직역과 의역 구분과 관련해 무녕의 입장을 살펴볼 필요

가 있다. 무냉은 원문주의자(sourcier)인가? 아니면 도착어주의자(cibliste) 혹은 의역주의자인가? 프랑스의 번역철학자 라드미랄(Jean-René LADMIRAL)은 번역학계를 원문주의자 진영과 도착어주의자들로 구분하면서 벤야민(Walter Benjamin), 메쇼닉(Henri Meschonnic), 베르만(Antoine Berman) 등을 원문주의자로, 자신을 포함하여 무냉, 해석이론가들을 도착어주의자로 분류하고 있다. 실제로 무냉의 번역에 관한 저작들을 읽어가다 보면 그를 의역주의자 진영에 포함시켜야 할 여러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직역과 의역의 무냉 식 표현인 투명 유리와 채색 유리의 개념이 가장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레 벨 앵피델』에서만큼은 무냉이 직역과 의역, 즉 채색 유리와 투명 유리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시각을 견지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서 무냉은 직역이든 의역이든 훌륭한 번역이 되기 위한 공통된 수칙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통일성의 원칙이다. 무냉이 보기에 직역 혹은 의역을 떠나서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언어, 문체, 어조의 통일성이 없다면 그 번역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번역문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일관성 혹은 통일성을 담보하지 않은 채 번역과정에서 부딪치는 개별적인 문제를 제각각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나가는 것이야말로 중국에는 번역 작품 전체의 동질성을 해치는 기형적인 작품을 양산하게 되는 지름길이다. 무냉은 전체적인 통일성을 지니지 못한 번역물들에 대해 가차없는 비판을 던진다(1955 99).

부조화에 대한 이러한 전적인 무감각, 이것이야말로 오래도록 규탄해야만 할 것이다. 이런 결점은 박학한 번역가들에게서 특히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이들은 고립된(개별) 언어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몰두한 나머지 전체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다.

결국 무냉이 제안하는 훌륭한 번역의 수칙은 직역이나 의역이라는 번역 방식을 선택하는 데 있다기보다는 어떤 쪽이 됐든 처음부터 끝까지 번역 작품의 톤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통일성에서 그 열쇠를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달리 말하자면 엘 메지라(Nassima El Medjira)가 지적하고 있듯이 무냉은 이른바 직역과 의역 혹은 출발어 중심 번역과 도착어 중심

번역의 우열을 가리기보다는 이 둘 모두가 충실한 번역에 이르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다음 단계에서 선택된 방식 내에서의 일관성 혹은 통일성을 강조했던 것이다(2001). 후일 번역사에서 줄곧 의역주의자로 분류되곤 하는 무냉이 가장 성공한 프랑스어 번역본의 예로 철저하게 직역 방식으로 번역된 르콩트 드 릴의 『일리아드』 번역본을 들고 있는 점은 우연이 아니다(1955 101).

박식하고 훌륭한 번역가임에 틀림없지만 많은 이들에게서 눈에 확 띄는 부조화에 비교해보면 르콩트 드 릴의 위대한 교훈은 오늘날까지도 명성을 날릴 만하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분명 그리스어를 잘 몰랐을 테지만 시인으로서 한 작품의 통일성과 그 통일성을 이루는 수단이 무엇인지 완벽히 알고 있었던 사람, 그 거장의 손으로 이루어진 번역의 동질성 이라니. 르콩트 드 릴이 번역한 『일리아드』의 어휘는 결함이 없는 세계이며, 형용사, 고유명사, 전문 용어, 장소명은 단 하나의 색깔, 곧 같은 색깔을 지니고 있다. 그가 사용한 구문은 여러 단계를 거치면 역사적 변모를 거듭해온 프랑스어의 양상에 기대는 대신 소수의 일관된 장치를 사용함으로써 독자에게 외국어를 읽는 듯한 느낌을 준다. 호메로스의 문체 번역도 마찬가지이다. 르콩트 드 릴의 『일리아드』는 미학적 통일성을 갖췄고, 바로 그 때문에 그 자체로 프랑스어의 걸작이 된다.

르콩트 드 릴의 번역에 대해 많은 장을 할애하면서 무냉은 그의 번역을 “역사적 재구성으로서의 번역”(traduction-reconstitution historique)으로 지칭하며 그의 번역이 일종의 새로운 직역(littéralité) 방식, 즉 원본 텍스트 저자의 사고방식, 표현방식, 삶의 방식까지를 모두 보존하면서 번역하는 방식을 창조했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르콩트 드 릴의 번역의 장점이 무엇보다 수미일관하게 같은 색깔을 유지한 미학적 통일성에 있다고 보았다. 번역 작품의 통일성에 대한 이 같은 무냉의 지적은 그 이후 어떤 이론적인 성찰의 대상이 되지는 못했지만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라는 번역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실제 번역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해답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무냉의 번역론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는데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닫는 글

무냉은 『레 벨 앵피델』과 『번역의 이론적 문제점』이란 저작을 통해 오랫동안 제기되어 왔던 번역의 불가능성에 대한 반론을 통해 번역의 가능성을 옹호함으로써 인류 역사와 함께 실천적으로 지속되어온 번역행위에 이론적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무냉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본적으로 언어학적 가설을 바탕으로 한 여러 가지 논거들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무냉의 번역론은 몇 가지 이유로 후세의 번역학자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우선 무냉은 번역을 언어적 현상으로 바라보는데 이 같은 무냉의 입장은 후일 르테레르와 같은 해석이론가들로부터 “번역은 언어 간의 접촉이며 번역은 언어적 작업이며 언어들 간의 구조적 차이로 인하여 번역불가능성이 발생한다는 그(무냉)의 관점은 번역을 텍스트 차원이 아닌 랑그 차원에 가두고 있다”(88)는 비판을 받게 되는 근거가 된다. 뿐만 아니라 무냉은 번역이란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찾는 과정에서 그의 연구의 지나치게 많은 부분을 ‘번역 불가능성’을 주장하는 번역가들의 논지에 할애하고 있다. 이 때문에 무냉은 “절대로 답변이 불가능한 형이상학적이고 케케묵은 문제에 사로잡혀, 본인이 표방한 근대성과 학문적 엄격성의 원칙을 스스로 위반하는 모순”을 저질렀다는 라드미랄의 지적처럼(1995 41) 때로는 ‘번역 불가능성’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오인되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후일의 비난은 물론 그가 번역 불가능성을 반박하기 위해 제시했던 논거들이 지닌 불충분함과 한계를 지녔다는 사실을 백 번 인정한다 하더라도 무냉의 번역옹호론이 갖는 의의를 부인하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무냉은 번역옹호론을 통해 그 이후에 등장하게 될 번역담론들이 더 이상 ‘번역이 가능한가?’라는 근원적인 물음에 매달릴 필요 없이 그 문제 너머에 자리 잡고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번역의 쟁점들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투명 유리’와 ‘채색 유리’라는 은유적 표현으로 형상화되는 무냉의 직역 대 의역 구분은 그의 저서가 발표된 지 5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번역학 담론에서 유효한 것이라는 점에서 특히 평가를 받아야 마땅한 부분이다. 무엇보다 무냉은 직역과 의역을 가르는 기준으로 역사적·문화적 요소를 출발언어의 언어적 특성과 대등하게 다룸으로써 그 이후의

직역 대 의역 논쟁이 단순히 원문의 자구에 대한 충실성 여부로 환원되지 않게 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라 투명 유리와 채색 유리의 차이가 번역문을 읽는 독자가 느끼는 친숙함 혹은 낯섬의 정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독자의 개념을 번역담론에 끌어들었다. 이는 다름 아닌 후일 ‘가독성’으로 압축되는 번역학의 또 다른 주요쟁점으로 부상하게 된다는 점에서 무냉의 번역론은 선구자적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비록 많은 이들의 비판처럼 무냉의 번역론이 언어학적 지식을 근간으로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전개되는 과정에서는 언어학뿐만 아니라 역사와 철학, 문헌학 등 다양한 영역을 넘나든다는 점에서 오늘날 번역학 연구의 화두 중 하나인 학제 간 연구를 보여주는 하나의 시범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윤진. 2000. 「‘충실치 못한 미녀들’과 프랑스 고전주의」. 『언어와 근대 정신 - 16.17세기 프랑스 경우』.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31-64.
- 손주경. 2007. 「16세기 프랑스의 “번역과 지평”」. 『불어불문학연구』. 70: 193-232.
- 서정철. 1986. “Entretien avec M. le professeur G. Mounin”, 『불어학 연구』. 4: 186.
- 이승권 옮김. 2002. 『번역의 이론적 문제점』.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Georges Mounin. 1963. *Les problèmes théoriques de la traduction*. Paris: Gallimard)
- 전성기 옮김. 2001. 『번역의 오늘』.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Marianne Lederer. 1994. *La traduction aujourd’hui*. Paris: Hachette)
- 정혜용. 2005. 「직역론의 새로운 갈래와 번역 패러다임의 변화」. 『프랑스학 연구』. 33: 269-86.
- Ladmiral, Jean-René. 1995. “A partir de Georges Mounin: esquisse archéologique.” *TTR* 8(1): 5-64.
- _____. 1986. “Sourciers et ciblistes”. *Revue d’esthétique*. 33-42

- Larose, R. 1989. *Théorie contemporaines de la traduction*. Québec: PUQ.
- Montesquieu, 1964. *Lettres persanes*, in *Oeuvres complètes*. Paris: Seuil.
- Mounin, Georges. 1994. *Les belles infidèles*. éd. par M. Ballard et L. D'hulst.
Lille: PULille.
- Nassima, El Medjira. 2001, “Fidélité en traduction, l'éternel souci des traducteurs.” *Translation Journal*. Vol. 5. No 4.

[Abstract]

A study on G. Mounin's theory of translation

Shin, Junga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article explores some points of Mounin's theory of the translation such as (im)possibility of translation, 'verres transparents' VS 'verres colorés', unity of translated text, etc., focusing on his *Belles infidèles*.

It is shown that the arguments developed by Mounin to affirm the translation possibility seem to be insufficient, doubtful and limited in several aspects. The primary focus of this article, however, will be on two key concepts in his translation theory : 'verres transparents' et 'verres colorés' which should contribute to shift the contents of translation studies beyond the old dichotomy between word for word translation (literal translation) and translation of meaning (free translation). More specifically, the importance of the concept 'unity of translated text' will be insisted on, because it seems a key word for achieving successful translation results in both of the forementioned way of translation.

▶ Key Words: Georges Mounin, Les belles infideles, (im)possibility of translation, word for word translation, free translation, unity of translated text

신정아

한국외국어대학교 프랑스어과 교수

claireshin@hufs.ac.kr

관심분야: 번역사, 17세기 프랑스문학, 문학사회학, 퀘벡 연극

논문투고일: 2009년 1월 30일

심사완료일: 2009년 2월 21일

게재확정일: 2009년 3월 7일